

# 이제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26.3.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 대환 가능 대출 : 은행권 사업자명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

※ 이용불가 대출 : 부동산임대업 대출, 담보·보증 대출, 연체대출 등

▶ 이용가능 시간 : 매 영업일 9:00~16:00까지 이용

▶ 신청방법 :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은행 앱

【관련 국정과제 59-1】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비용 경감"

## I.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준비상황 최종점검

3.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3월 17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하였다.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개시 준비상황 최종점검】

- (일시·장소) 2026.3.17.(화) 10:00~10:40 /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 (참석자)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은행리스크감독국장, 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담당 임원,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네이버페이 부사장, 비바리퍼블리카 부사장

이날 점검회의는 3월 18일 개시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국장은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행에는 적극적인 비대면 신용상품 출시를, 대출비교플랫폼에는 온라인 홍보 강화를 당부하였다. 또한 실수요자인 소상공인연합회에도 회원대상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요청하였다.

## II.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성과와 확대 경과

금융위원회는 대출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23.5.31)부터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24.1.9), 전세대출('24.1.31)까지 점차 확대하였다.

'25년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하였다. 소비자의 직접적 대출 이동으로 인한 효과 외에도 금융회사가 대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우대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였다.

\* 총 대출이동 규모 22.8조원, 평균 금리 인하폭 1.44%p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는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되는 등(’25.4월 행안부·행정연구원 선정) 대표적인 금융혁신 서비스로 평가받았으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 간담회’(’25.7.17) 등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 III.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운영내용 및 이용절차

####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내용 >

3.18일 개시일 기준, 총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플랫폼, 은행 앱 >

대출비교플랫폼* (5社)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은행 (16社)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 ※ 제주은행 '26.3월말, 경남은행 '26.4월말, 수협은행 '26말부터 이용가능

\* 그 외 대출비교 플랫폼은 전산개발·제휴사 확보 등 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후 순차적 참여 예정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아래 표)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 플랫폼, 다른 은행 앱에서 기존대출 조회가 가능한 은행 >

금융권	금융회사명
은행 (18社)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경남, 수협, SC제일, 씨티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하여 만기도 제한없이 운영한다.

< 대출유형별 만기일, 증액, 이동가능기간 비교 >

구 분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① 만기일	제한 없음	기존 만기까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② 증액	가능	불가능	보증금 증액시 가능	가능
③ 이동 가능 기간	취급 후 6개월 경과	취급 후 6개월 경과	취급 후 3개월 경과 만기 6개월 전	제한 없음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절차 >

먼저,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향후 서비스 안정시 09:00~22:00로 확대 예정

은행의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 I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신용대출 잔액 대비 이동 규모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

또한,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시행을 계기로 이전에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별첨]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운영 방안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진애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정지혜 (02-2100-2994)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02-3145-8350)
		담당자	팀 장	심서연 (02-3145-8359)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책임자	부 장	최운영 (02-531-1700)
		담당자	팀 장	박태원 (02-531-1770)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이종혁 (02-3705-5339)
		담당자	팀 장	전주환 (02-3705-5119)
<공동>	핀테크산업협회	책임자	사무국장	정진국 (02-6949-2675)
		담당자	실 장	임형찬 (02-6949-2682)



### 1.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는지?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간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면 대출의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 사업자 명의(사업자의 개인 명의 대출 아님)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3.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 신용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은 금번 갈아타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및 B2B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 이미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4. 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달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대출 갈아타기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차주의 기존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 필수

#### 5. 갈아타기시 기존대출보다 증액대환이 가능한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및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증액 대환도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도 주담대에만 제한)

#### 6. 갈아타기시 만기가 연장되는지?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만기를 제한하지 않아 대환시 만기가 새로 설정됩니다.

\* 주담대 대출갈아타기 이용시 만기 확대(DSR↓) 등을 통해 추가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어 기존대출 약정만기 내 대환만 허용(가계신용대출·전세대출 미적용)

#### 7. 이동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14일)이 도과한 대출은 모두 이동할 수 있으며,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가계 신용대출은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시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제한없이 이동 가능)